

하늘에 보이는 2017 충남도 살림살이



순서



01 주요정책및성과

03

02 예산결산

07

03 재무결산

11



01

주요정책 및 성과

■ 재정운용 기조 및 동향



수입분야 저금리 효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가계부채 증가에 소비위축 등 내수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출분야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 지출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도정 주요정책

●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복지·안전)

- 기초노령연금 4,932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356억원, 생계급여 1,608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369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5억원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152억원, 소방복합시설 및 소방시설 보강 1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5대 전략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영위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공동체 조성

● 풍요롭고 쾌적한 삶(문화·환경)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130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69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71억원,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13억원
-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27억원, 생태하천 복원 250억원, 숲 가꾸기사업 19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4대 전략

- 여유와 활기를 주는 문화·예술·체육 육성
- 자연·역사·문화유산 가치창출과 관광활성화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 지속 가능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



활력이 넘치는 경제(경제 · 산업)

- 일자리창출 35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7억원, 외투자지역 조성 111억원, 수소연료차 산업기반 육성 27억원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21억원, 청년 CEO 500프로젝트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대 전략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미래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 경제성장
- 상생과 사람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
- 꿈과 열정을 키우는 청년
- 남북 및 국제교류 활성화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국토 · 해양 · 농정)

- 국지도 확포장 252억원, 지방도 정비 323억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165억원, 내포보부상촌 지원 78억원
- 지방어항 건설 106억원, 도서개발 96억원, 인공어초 설치 49억원, 연안정비 34억원
- 농업환경 프로그램 운영 146억원, 3농혁신 특화사업 30억원, 지역혁신모델 구축 25억원, 희망마을 선행사업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대 전략

- 농림축산어업과 농산어촌의 질적 발전
-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도모
- 사통팔달 교통 · 물류망 구축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행정)

- 도민참여와 소통에 기반 민주적인 도정운영
-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대 전략

- 모든 도정에 주민참여 확대
-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 투명하고 유능한 혁신도정



■ 도정 주요 성과

재정정보시스템 UN공공행정상 수상

- 전국 최초 道 세입·세출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공개
- 2015년 재정정보 공개 전국 자치단체 도입 확산



충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UN공공행정상 수상 ('18. 6월)

청렴도 평가 전국1위 달성

- 도 공직자 모두 청렴도 향상 분위기 공감대 형성 노력



충남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최초 전국 광역시도 중 1위 달성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환자 500명 이송

- 도서·산간 취약지 환자 이송시간 획기적 단축(5시간→45분)



3대(외상, 심장·외상질환)
중증응급환자 500명중 410명 건강 회복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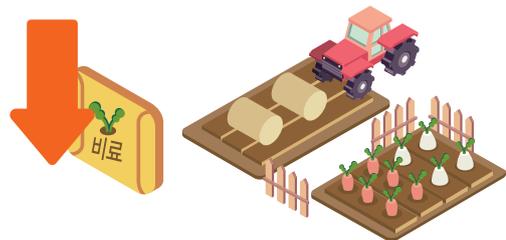
- 지방정부 최초 탈석탄 국제컨퍼런스('17.10.) 개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론화 선도



“재생에너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충남에너지전환 2050비전 설정

화학비료 감축 전국1위

- 도내 수농업인 토양환경 개선, 고품질 쌀, 영농비 절감 동참
- 전국 최초 농가단위 직불금 농업환경 실천사업 도입



전년보다 화학비료 사용량 12천톤(8.6%) 감축
/ 전국 0.7% 증가

주민이 만든 동네자치, 정부사업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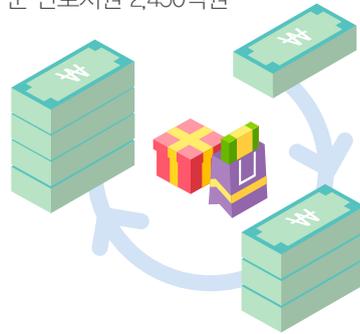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101개소 육성, 전국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선정



충남 동네자치 벤치마킹, 정부에서도 “혁신 읍면동사업”으로 추진

충남 통합마케팅 3,000억원 달성

- 도 단위 통합마케팅(충남오감) 상품화 및 판로개척 550억원
- 시·군 판로지원 2,4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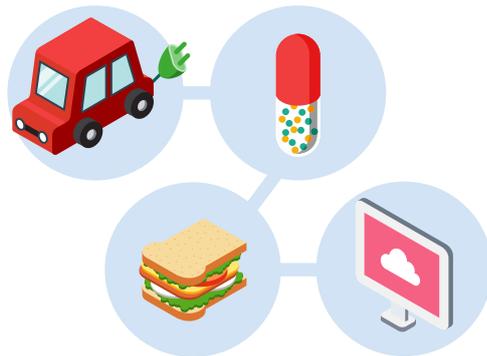


2013년 501억원—2015년 1,728억원
—2017년 3,000억원

미래산업 R&D 선점, 충남무역 1천억 달러 진입

- 친환경 수소차 부품산업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사업유치
- 건강관련 바이오산업 유치 및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강화

수출 790억 달러, 무역흑자 485억 달러 달성, 3년 연속 전국 1위



백제에서 서해안까지 문화관광 및 해양산업기반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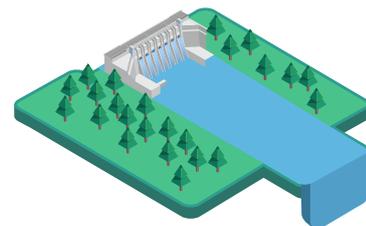
- 10여 년간 지연돼 온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체결 400억원 예산절감
- 정부추진 마리나 중 최초 외자(중국) 유치 성공



대선공약 국가사업화 및 와자유치 성공
해영건도실현 기반 마련

가뭄극복 및 하천 재해예방 등 도민안전 강화

- 보령댐 저수율 8.3% 극복 제한급수 없이 안정적 용수 공급
- 하천정비예산 개청 이래 최대 확보
홍수대응능력 향상



가뭄극복 국제환경포럼 최우수상 수상 및 전국 우수사례 선정

■ 수입 · 지출 흐름도

● 일반회계

자치단체가 일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 특별회계 8개

도청소재도시건설,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균형발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수입결산액 (충남도로 들어온 돈)
6조 323억원

지출결산액 (충남도가 도민을 위해 사용한 돈)
5조 5,93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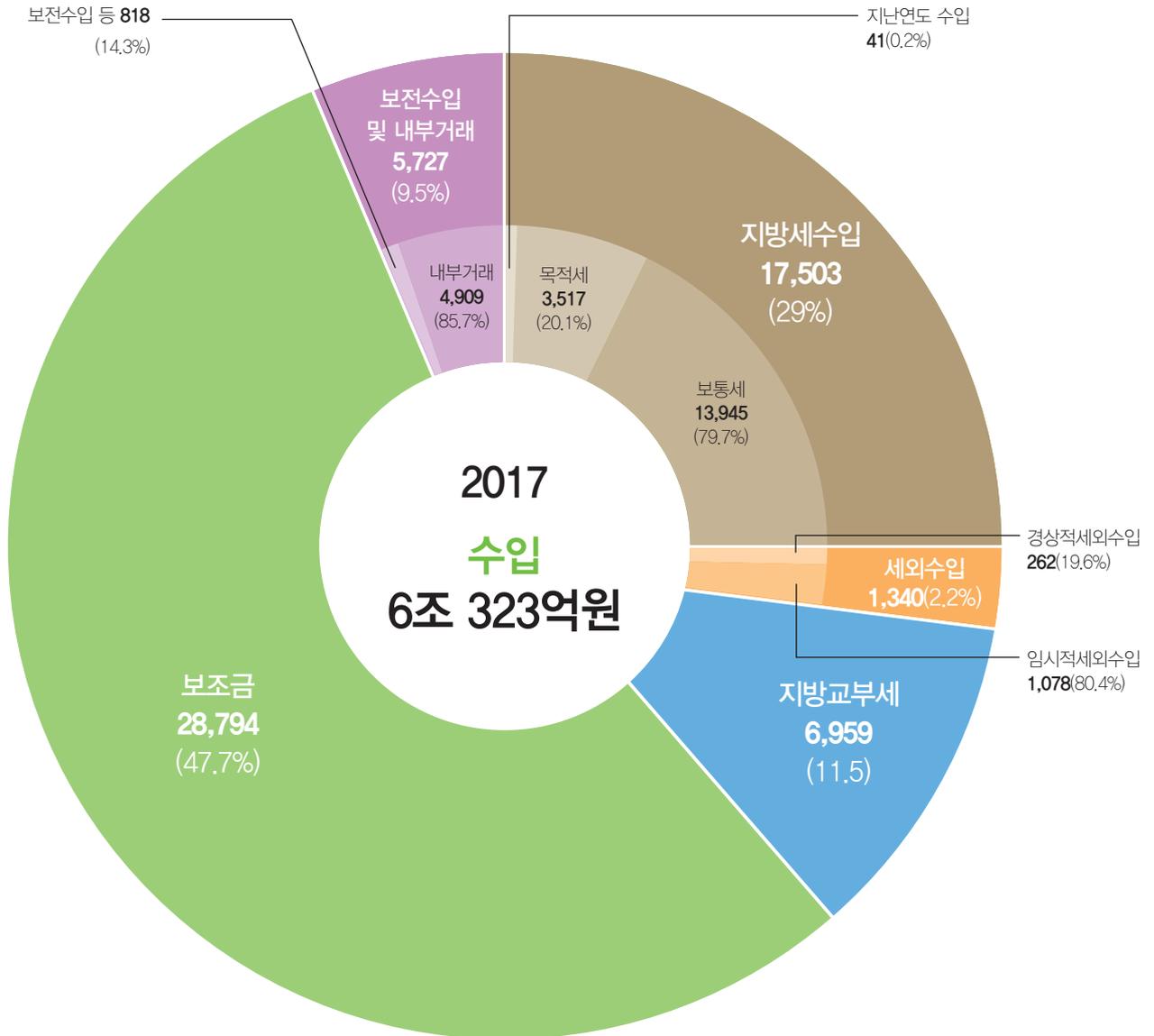
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
4,389억원

● 기금회계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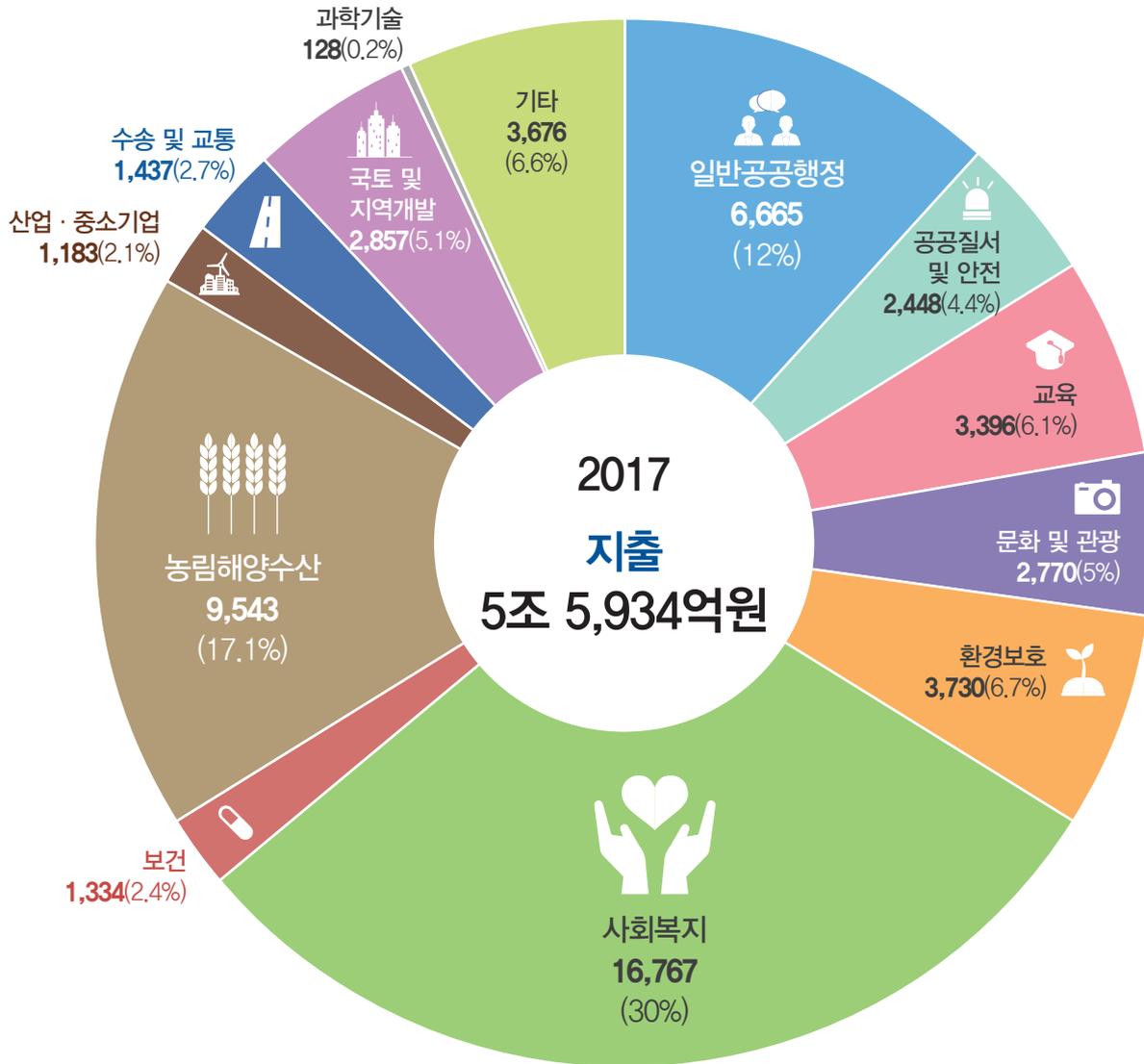
통합관리,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사회복지, 재해구호, 식품진흥, 재난관리, 남북교류협력, 지역개발



■ 수입 ·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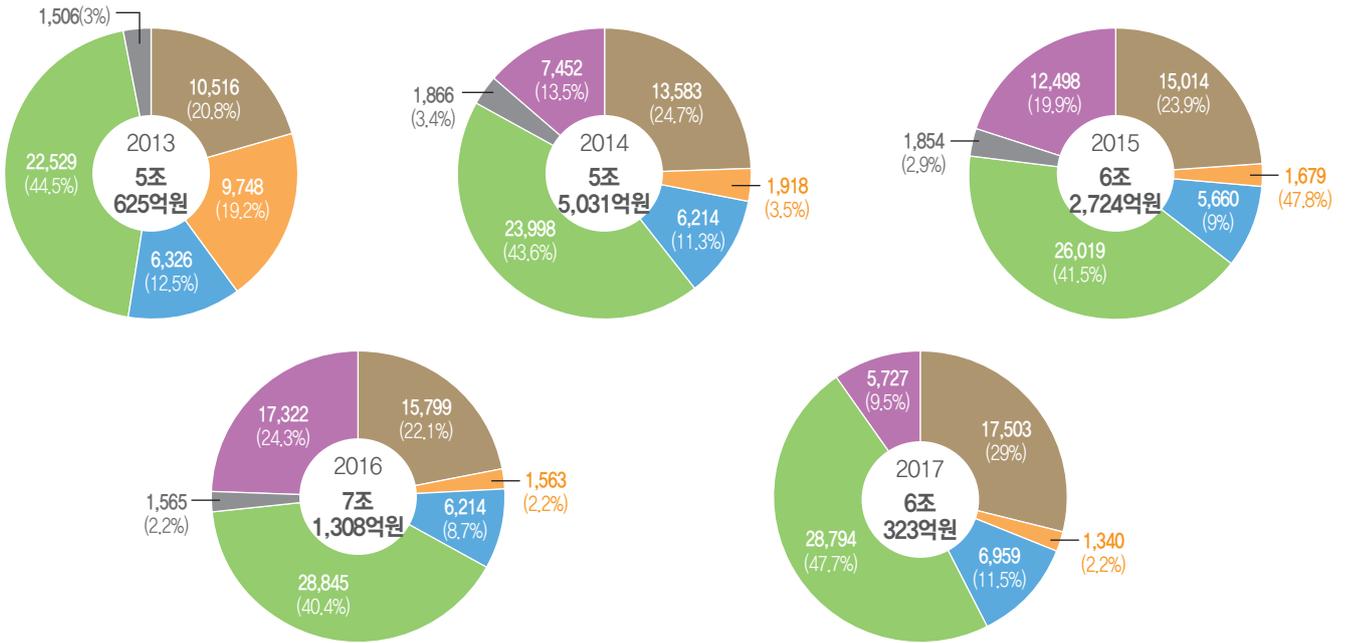
- 지방세수입**
 - 보통세 : 세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입니다.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소방시설, 오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세 · 지방교육세)
 - 지난연도 수입
- 세외수입** 국가 · 공공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입니다.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34억원), 사용료수입(41억원), 수수료수입(31억원), 사업수입(14억원), 징수교부금수입(57억원), 이자수입(85억원)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90억원), 부담금(335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20억원), 기타수입(625억원), 지난연도수입(8억원)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원입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입니다.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내부거래 : 타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 보전수입 등 : 전년도 잉여금과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등을 통한 수입 금액입니다.



-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 **수송 및 교통** 도로,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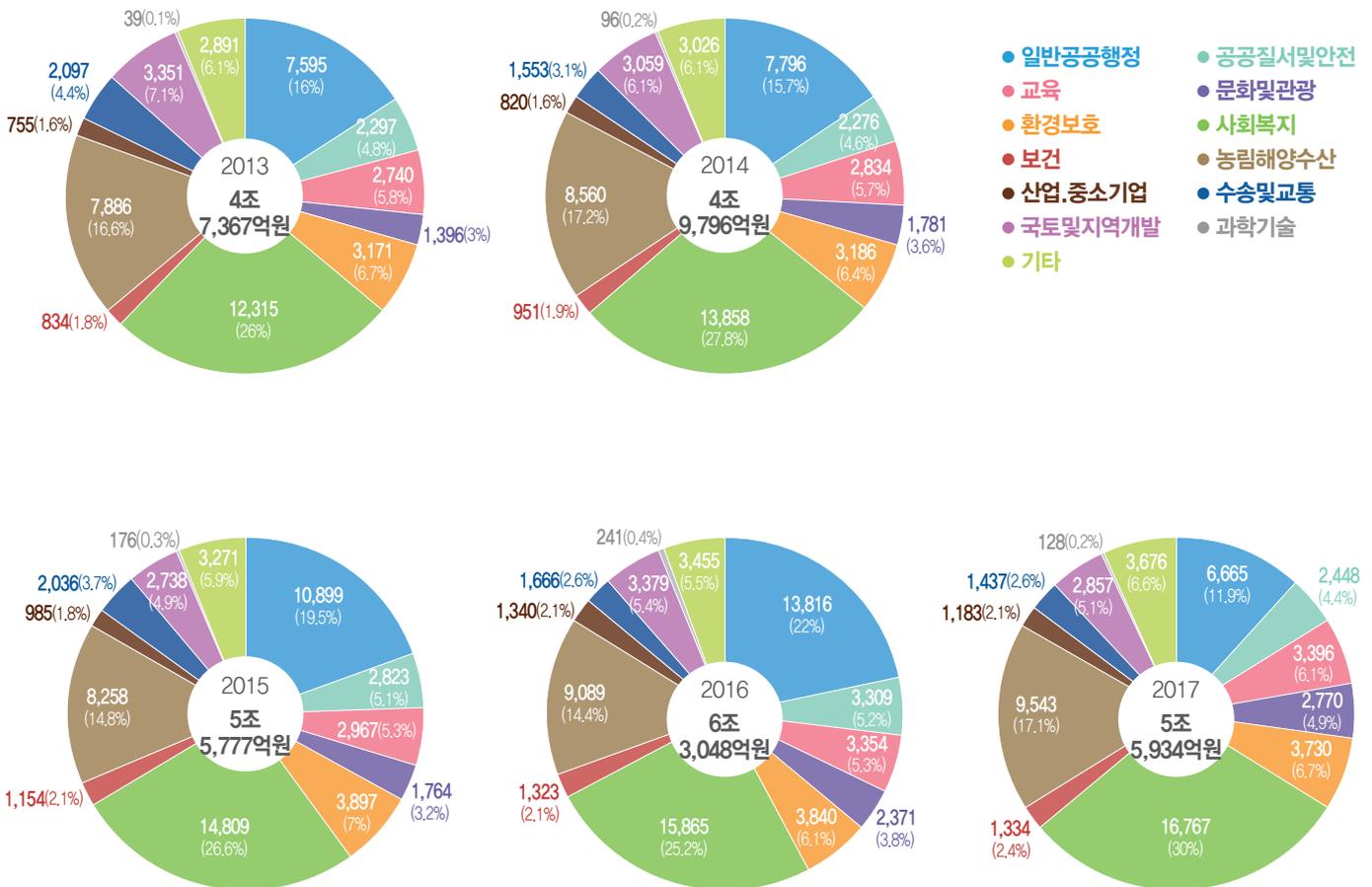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수입 세목별 결산 현황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방세의 경우 신규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전년 대비 10.8% 증가 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4.5%씩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지출 분야별 결산 현황



*지출 분야별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분야로 5.6% 증가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씩 증가하였습니다.

■ 재무제표의 개념

재무제표란 일정기간동안 조직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성과와 일정 시점에서 자금이 어떤 원천으로부터 조달되고,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며,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상의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흐름표는 지방회계 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유예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의 필요성 및 기능

- 우리 도의 살림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시설 조성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한 자산과 향후 부담할 부채를 알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도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현황

- ※ **자 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
- 부 채** 과거사건결과에 따라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채무
- 순 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장래세대가 받게 되는 순수한 편익



자산 = 부채 + 순자산

재정상태표 (기업의 대차대조표)

2017년12월말 기준 모든 자산과 그 원천을 종류별로 나누어 기록한 표



수익 = 비용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 (기업의 손익계산서)

2017.1.1.~12.31.동안 운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생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분류·기입한 표



기말순자산+순자산감소 = 기초순자산 + 재정운영결과 + 순자산증가

순자산변동표 (기업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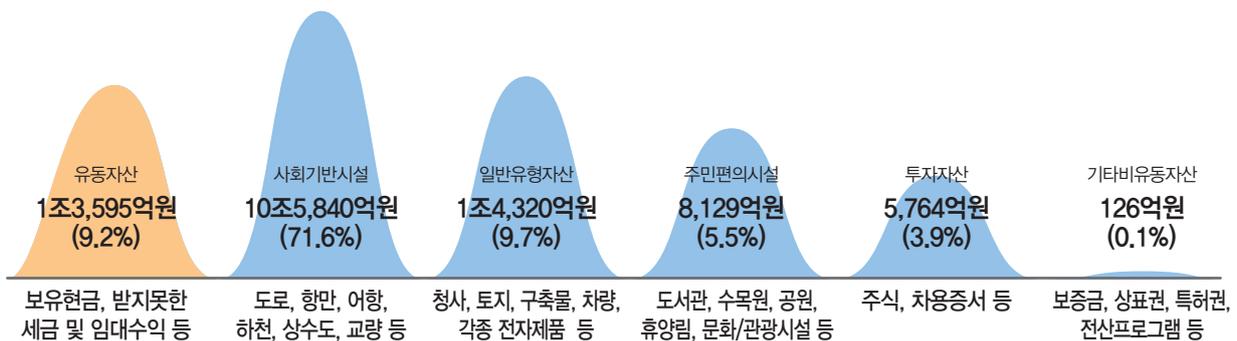
2017.1.1.~12.31.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내역표

■ 재무제표 세부내용

자산 14조 7,774억원

※ 유동자산/비유동자산(고정자산) 구분 기준 :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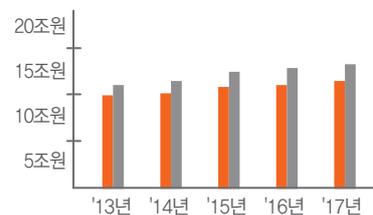
■ 유동자산 1조3,595억원(9.2%)
■ 비유동자산 13조4,179억원(90.8%)



- 사기업은 이윤창출을 주목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고 자산 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 최근 5년간 자산 추이를 보면 2013년 13조3,034억원, 2014년 13조8,684억원, 2015년 14조1,759억원, 2016년 14조5,348억원, 2017년 14조7,774억원으로 매년 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토지 및 건물 등 유·무형 자산, 현금 및 예금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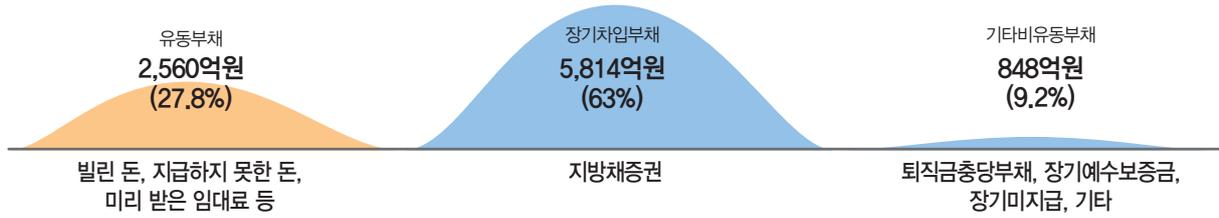


■ 충남 ■ 인근단체 (평균-충북, 전남, 전북)

부채 9,22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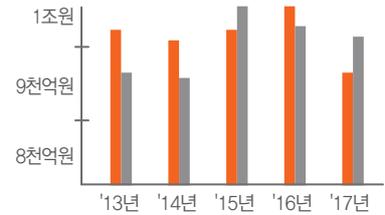
※유동부채/비유동부채(고정부채) 구분 기준 :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

■ 유동부채 2,560억원(27.8%)
■ 비유동부채 6,663억원(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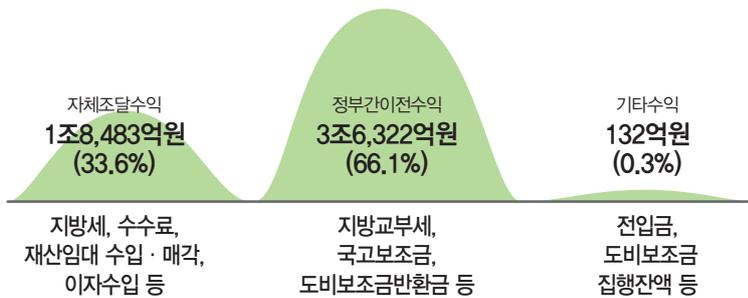
- 장기차입부채는 도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따른 대금일부를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지방채증권)인데, 도·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자금을 지원합니다.
-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9,834억원, 2014년 9,609억원, 2015년 9,802억원, 2016년 1조277억원, 2017년 9,223억원으로 부채감소원인은 지방채증권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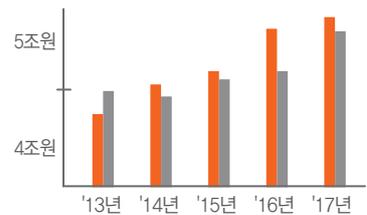
■ 충남 ■ 인근단체 (평균-충북, 전남, 전북)

수익 5조 4,93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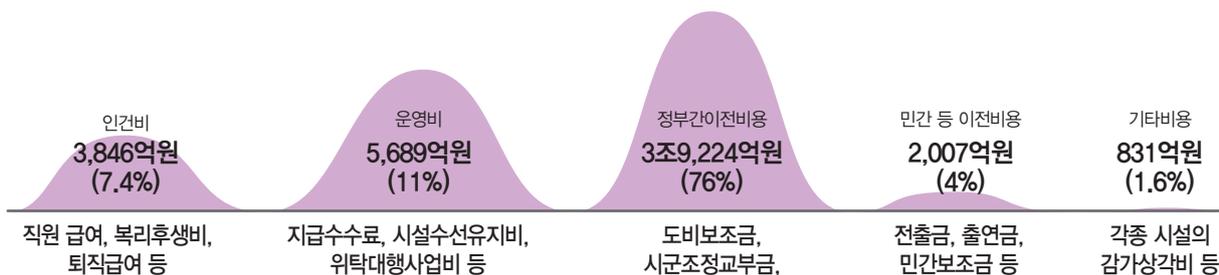


- 수익 중 지방세수익이 32%, 국고보조금이 52%를 차지합니다.
-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4조225억원, 2014년 4조6,807억원, 2015년 4조8,440억원, 2016년 5조2,515억원, 2017년 5조4,93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지방세수익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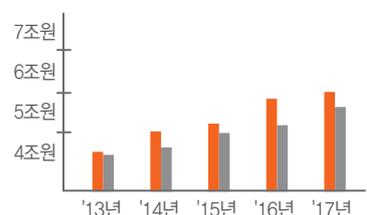


비용 5조 1,597억원



- 정부간이전비용은 도비보조금 3조1,057억원(79.18%), 시군조정교부금 4,914억원(12.5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211억원(8.19%), 국가 및 지자체 간 부담금 27억원(0.0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15억원(0.04%) 순으로 많이 지출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비용은 2013년 3조9,432억원, 2014년 4조3,278억원, 2015년 4조6,049억원, 2016년 5조126억원, 2017년 5조1,597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2016년은 도비보조금, 2017년은 시군조정교부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재정운영결과 3,34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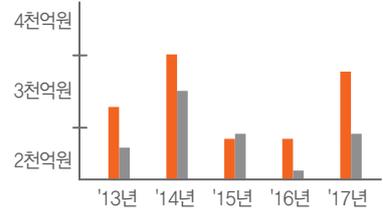
기업 일반 사기업의 경영운영목적은 이윤극대화이며 수익이 높으면 흑자, 비용이 높으면 적자로 경영운영결과를 산출합니다.



행정 행정기관의 운영목적은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므로 수익 또는 비용 중 어느 한 쪽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지 않고 비슷한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익이 높은 것은 도민이 부담한 세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많다는 것이며, 비용이 높은 것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출한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 중 지방세수익이 적고 비용이 높을수록 도민에게 유리합니다.
- 그러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어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액과 이자는 세금으로 충당하여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최근 5년간 재정운영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2,820억원, 2014년 3,529억원, 2015년 2,390억원, 2016년 2,388억원, 2017년 3,340억원으로 매년 수익이 비용보다 높습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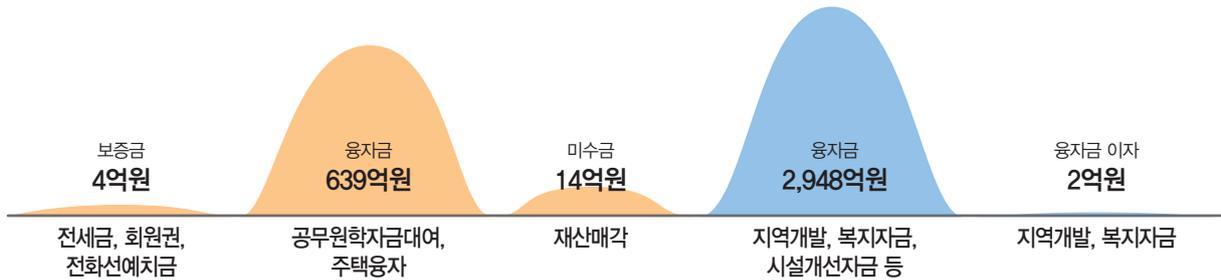
■ 충남 ■ 인근단체 (평균-충북, 전남, 전북)

■ 채권 및 채무현황

채권 3,60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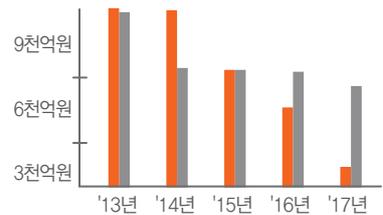
※채권이란 빌려 준 돈에 대해 받을 권리로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이자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포함하고, 개인 간 거래로 비유하면 각서, 차용증 등 증표(서)로 권리를 확인합니다.

■ 일반회계 657억원(18.2%)
■ 기금회계 2,950억원(81.8%)



- 2016년 12월말에 6,105억원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5,383억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7,881억원을 받아서 2017년 12월말 3,607억원의 받을 돈이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채권은 2013년 1조 840억원, 2014년 1조 602억원, 2015년 8,663억원, 2016년 6,105억원, 2017년 3,60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지난 연도는 비슷하였으나, 2016년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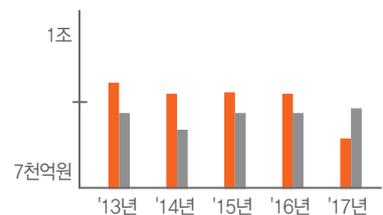


채무 7,837억원

※채무란 빌린 돈에 대해 갚아야 할 의무로서 언제 얼마를 빌려서 언제까지 갚을지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통칭합니다. (참고 : 채무 ≠ 부채, 채무 < 부채)

- 2016년 12월말에 8,656억원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845억원을 추가로 빌리고, 1,664억원을 갚아서 2017년 12월말 7,837억원의 갚을 돈이 있습니다.
- 채무액 전체가 지방채권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입니다. 도와 거래를 통해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업자 및 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입니다.
- 최근 5년간 채무는 2013년 8,963억원, 2014년 8,630억원, 2015년 8,794억원, 2016년 8,656억원, 2017년 7,83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채무액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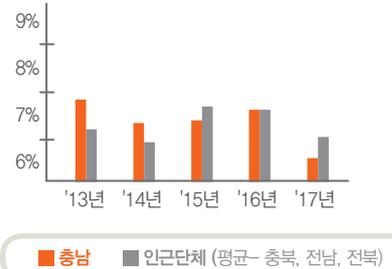
■ 재무분석 주요지표

재무제표 지표별 분석을 통해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율 및 1인당 통계를 제시하므로 보다 이해도를 높여 줍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상태가 양호합니다.
-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3년 7.39%, 2014년 6.93%, 2015년 6.92%, 2016년 7.07%, 2017년 6.24%로 감소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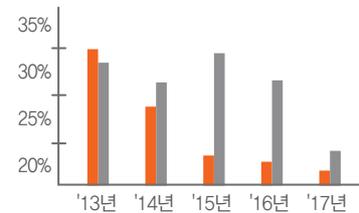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 1년 이내 자금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현금화하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비율이며, 유동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단기 지급능력이 우수합니다.
- 최근 5년간 유동부채비율은 2013년 33.85%, 2014년 26.63%, 2015년 21.73%, 2016년 20.16%, 2017년 18.83%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유동비율은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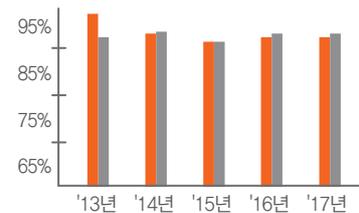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지출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실제 얼마만큼 지출한 지에 대한 비율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세출비율은 2013년 93.73%, 2014년 94.14%, 2015년 92.65%, 2016년 93.76%, 2017년 93.37%로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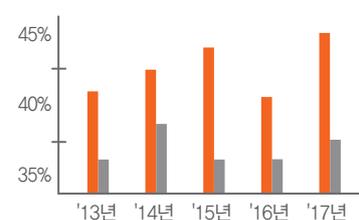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총수익 중 고정적 수익의 비율이며, 높을수록 수입 여건이 양호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 최근 5년간 경상수익 비율은 2013년 41.6%, 2014년 43.79%, 2015년 44.07%, 2016년 42.92%, 2017년 45.36%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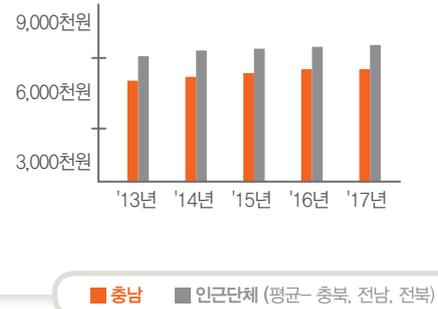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주민 1인당 총자산

- 당해연도 총자산을 연말기준 도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주민 1인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정도이며, 주민 1인당 공공서비스 제공정도를 나타냅니다.
-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총자산은 2013년 6,497천원, 2014년 6,724천원, 2015년 6,823천원, 2016년 6,932천원, 2017년 6,984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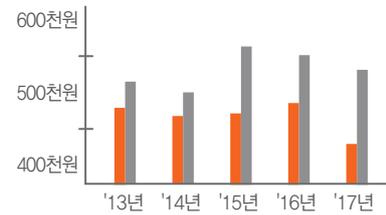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주민 1인당 총부채

- 당해연도 총부채를 연말기준 도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주민 1인당 총부채가 적을수록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경감됩니다.
-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총부채는 2013년 481천원, 2014년 465천원, 2015년 471천원, 2016년 490천원, 2017년 435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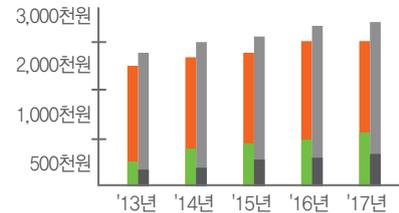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주민 1인당 총수익(지방세수익)

- 당해연도 총수익을 연말기준 도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수익의 대부분은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정부지원금이며, 총수익 중 지방세 징수에 따른 수익은 건물, 토지, 자동차 등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총수익(지방세수익)을 보면, 2013년 2,063천원(517천원), 2014년 2,269천원(633천원), 2015년 2,331천원(729천원), 2016년 2,504천원(755천원), 2017년 2,595천원(827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총수익은 낮지만, 지방세수익은 높은 수준으로 지역경제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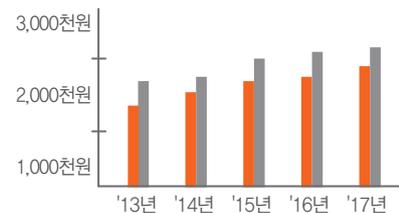


■ 충남 (■ 지방세수익) ■ 인근단체 (평균-충북, 전남, 전북 / ■ 지방세수익)

주민 1인당 총비용

- 당해연도 총비용을 연말기준 도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비용의 대부분은 도민의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운영비)와 도비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 및 교육비 전출금(교육청에 준 돈) 등입니다. 비용이 높다는 것은 도민에게 많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만 도가 과도하게 돈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총비용은 2013년 1,926천원, 2014년 2,098천원, 2015년 2,216천원, 2016년 2,390천원, 2017년 2,437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낮습니다.

[최근 5년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추이]



충남도 “재정정보시스템” UN공공행정상 수상의 의미

1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도정역사상 최초로 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UN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3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충남도의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시스템이며
독창성과 혁신성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 발전성 및
전국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앞으로 충남도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이라는 도정비전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